

# Yeosu Web Contents

2023년 12월 01일 00시 08분



# 목차

목차	2
전라좌수영본영 여수	3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	3
전라좌수영(□□□□□)의 규모	3
조선후기의 전라좌수영 규모	3
조선후기의 전라좌수영 건축 상황	4
전라좌수영 연혁	4
관할구역	6

## 전라좌수영 본영, 여수



좌수영진도(좌수영지, 1847)

[전라좌수영진도 크게보기](#)

여수가 전라좌수영의 본영으로 불리게 된 것은 1479(성종10년)에 순천( 〇〇) 내례포의 수군만호영( 〇〇〇)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해남의 수영을 전라우도수영, 순천(지금의 여수)의 신설수영을 전라좌수영이라 하면서부터 이다.

1593년부터 1601년까지는 삼도수군통제영( 〇〇〇〇〇〇〇)의 본영( 〇〇)이기도 했던 전라좌수영 여수는 조선시대( 〇〇〇〇) 400년간 조선수군의 본거지로서 구국의 성지로 전승의 사명( 〇〇)을 다 한 곳이며 지금까지 성웅 이순신 장군의 기백과 충정( 〇〇)의 정신이 도도히 살아 숨쉬는 역사( 〇〇)의 고장이다.

### 전라좌수영( 〇〇〇〇〇〇)의 규모

전라좌수영이 성종( 〇〇) 16년 최초로 설치될 당시의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성종실록」에 의하면 성종( 〇〇) 21년 10월에 전라좌수영성을 수축하였는데 당시의 규모를 「주3천6백3십4척( 〇〇〇〇〇〇〇〇)」이라 했다. 또 1847년 기록인 「호좌수영지( 〇〇〇〇)」에서는 성체( 〇〇)주위가 3,158포척( 〇〇)이라 했다.

#### 조선후기의 전라좌수영 규모

구분	내용
성첩( 〇〇)	체성( 〇〇) 주위가 포척( 〇〇)으로 3,158척
여첩( 〇〇)	437좌( 〇)

총철( )	1,324처( )
곡성( )	6처( ) 각처에 포루( )와 화포기( ) 6좌 설치( )
민호( )	성내( ) 2,024호( )
천정( )	성중( ) 7고( ), 성외( ) 2고( )
연못	덕지( ) 1처( )

### 조선후기의 전라좌수영 건축 상황

건물명	간수	건물명	간수
진남관( )	70	중문( )	3
윤주헌( )	4	정변문( )	3
백화당( )	8	완경루( )	6
마구( )	14	동문( )	9
공사문( )	3	동문루( )	6
동문우포루( )	3	남문좌포루( )	2
서문우포루( )	2	수성중군청( )	4
망해루( )	6	결승당( )	4
공사문( )	2	무권제( )	3
서학당( )	6	공수( )	5
망미루( )	4	중영동헌( )	3
동문좌포루( )	5	서문루( )	6
남문우포루( )	4	서문좌포루( )	2
수첨군관청( )	13	의승청( )	11

### 전라좌수영 연혁

전라좌수영은 조선 성종 10년(1479)에 최초 설치되어 고종 32년(1895)에 혁파( )될 때까지 400여년간 조선수군의 주진( )으로서 남해안 방어를 위한 전략적 요충의 수군영( )이었다. 특히 선조 25년(1592) 임진왜란으로 국가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충무공이 거둔 해전에서의 승리를 바탕으로 한 국난극복의 본거지로서 조선수군의 최고사령부였으며, 이후 지역의 정치와 행정의 중추가 되었다.

설영( )될 당시의 수군영( )의 대체적인 면모야 갖추었겠지만, 임란을 거치면서 제반시설은 크게 변모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난중일기」에 축성에 관한 기록이 자주 나타나는 것과 같이 1591년에 충무공이 전라좌도수군절도사( )로 부임하면서 한층 체계적으로 정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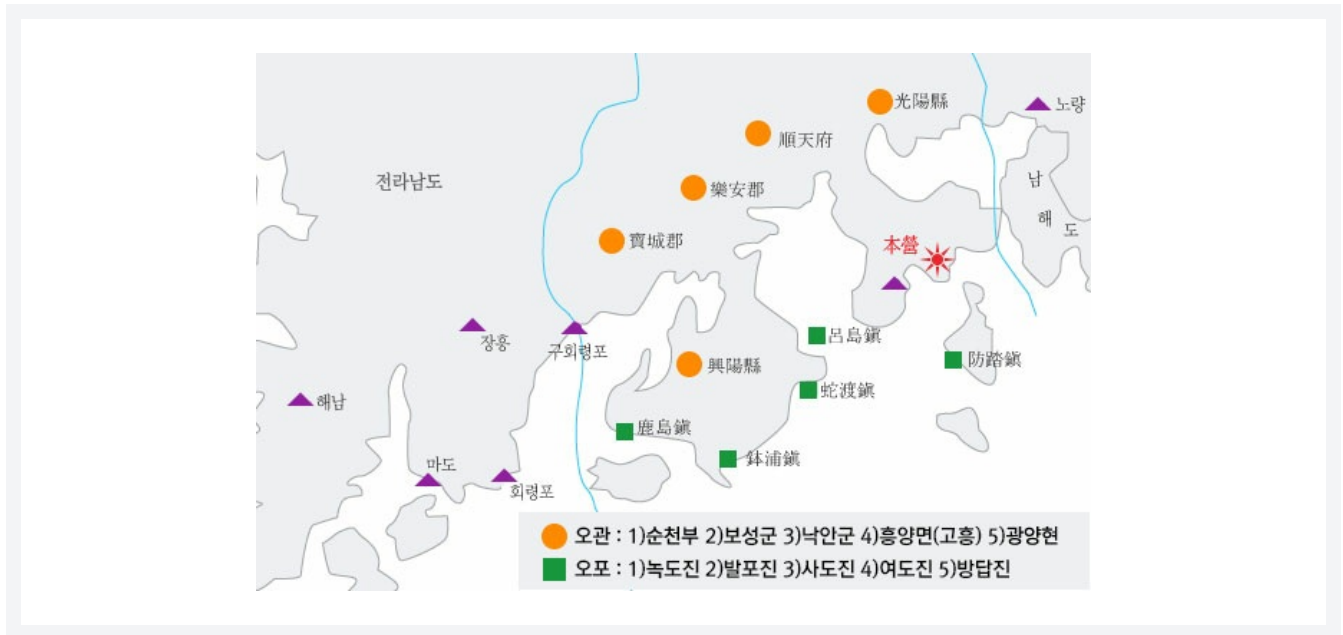
현종 13년(1847)의 허섭의 「호좌수영지에는 전라좌수영의 영성( )과 병력, 군미, 병기 등이 상당한 규모로 기록되어 있어서 조선후( <http://www.yeosu.go.kr>)

기까지도 여전히 중요한 수군영으로서 존속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종 32년(1895)에 영( )이 혁파되면서 방치되다가 일제치하로 오면서 영성과 관아건물은 훼손, 또는 방치되기에 이른다. 일제의 식민통치를 몇 년 앞 둔 시점에서 영( )이 혁파되고, 1916년의 해면매축( )과 민가 조성은 영성( )의 인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면서 전라좌수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년도	내용
1479년 3월	내례포( )를 철폐하여 수군절도영( )을 설치하고 수군절도사( )를 둠
1485년 3월	옥( ) 대신에 성보( ) 축조를 시작
1491년	성보( ) 완성
1498년	절도사( ) 이양( )이 돌을 운반, 장군도( ) 왼쪽에 축대를 쌓음
1591년 2월	이충무공( ) 전라좌수영( )으로 부임
1592년 1월	성문해자( ) 축조
1592년 3월	서문( ) 밖 해자( )와 성곽 축조
1592년4월	품방해자( ) 축조, 임진왜란( ) 발발
1593년 7월	삼도수군통제사( ) 이충무공( )이 거제( ) 한산도( )에 진( )을 설치
1598년	절도사( ) 이시연( )이 충청병마절도사( )에서 본직( )으로 옮겨 삼도( )를 통제( )할 제영사( )를 건설
1599년	이시연이 정유재난( )으로 소실된 진해루지( )에 객사( ) 진남관( )을 건립
1664년	절도사 이도빈( )이 진남관, 망해루, 결승당( )을 재건하고 화약고( ), 수군기( ), 호고( ), 해현창( )을 새로 건립
1673년	절도사 원상( )이 보군창( )을 신건
1684년	절도사 한근( )이 완경루( )를 창건
1694년	절도사 정동망( )이 지창( )을 창건
1716년	진남관( ) 화재로 소실
1718년	절도사 이제면( )이 진남관 중건
1722년	절도사 박세정( )이 도부창을 창건
1741년	전반집물고( ), 병반집물고( ), 외창( )을 창건
1759년	절도사 이윤덕( )이 보군창( )의 병기고( )를 중수 광양둔창( ), 보선고( )를 중수
1773년	절도사 김영수( )가 체성( )을 보축( )하고, 여첩( )을 개축하였으며 곡성( ) 6곳에 포루( )를 세우고 화기포( ) 6좌를 설치, 유군기( ), 점궁방( )을 창건
1774년	동문루( )를 철문( )으로 건립, 장대( )를 겸하는 동문좌포루( )를 건립, 서문루( ) , 남문좌포루( ), 서문좌포루( ), 서문우포루( ), 수성중군청( ), 의승청( ), 수첩군관청( ), 수성고( )를 창건

## 관할구역



전라좌수영이 설치되어 폐영( 洞 )될 때까지 그 관할해역의 변천을 살펴보면, 「전라좌수영 설치 당시」와 「임진왜란 당시」,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의 세단계로 나누어진다.

전라좌수영 설치 당시의 전라좌수사가 지키는 바다 구역은 해남반도 동편에서부터 그 동쪽의 전남해안이었다. 전라좌수사가 거느리는 진포( 洞 )는 달랑( 洞 )·마도( 洞 )·회령포( 洞 )·녹도( 洞 )·발포( 洞 )·사도( 洞 )·여도( 洞 )·돌산( 洞 ) 등 8진포이었다 함은 이미 앞에서 밝혔다.

임진왜란 당시에 와서는 바다지키는 관할해역( 洞 )이 해남반도 동편에서, 보성군의 동쪽 전남해안지방으로 축소되어 현 해남군의 일부와 강진군 및 장흥군의 해역( 洞 )이 전라좌수영의 관할에서 이탈되었다. 따라서 전라좌수영 아래 그 속음( 洞 )으로 수군이 편성되어 있는 순천부( 洞 )·낙안군( 洞 )·보성군( 洞 )·광양현( 洞 )·흥양현( 洞 ) 등 다섯고을(5 洞)과 본시부터 해안방위의 소임을 맡고 있는 속진( 洞 )인 방담진( 洞 )·사도진( 洞 )·여도진( 洞 )·발포진( 洞 )·녹도진( 洞 ) 등 다섯 진포( 洞 )(5 洞)가 있었다.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장흥( 洞 )해안이 전라좌수영 아래로 들어와 전라좌수영에 속하는 고을은 앞서 밝힌 다섯고을 5관( 洞 )에 장흥부( 洞 )가 추가되어 6관( 洞 )이 되고 전라좌수영에 속한 진포( 洞 )는 앞서 말한 다섯 진포 5포( 洞 )에 회령포진( 洞 )과 고들산진( 洞 )이 더하여져 7포( 洞 )가 되어 소위 「6관·7포」가 되었다. 이는 고종 32년(1895) 전라좌수영이 폐영 될 때까지 계속 된다.

# Yeosu Web Contents

